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유배인 추사 김정희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방안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조 서 현

2011년 8월

제주유배인 추사 김정희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방안

지도교수 양진건

조서현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스토리텔링)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조서현의 사회교육학(스토리텔링)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1년 8월

【국문초록】

제주유배인 추사 김정희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방안

조 서 현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지도교수 양 진 건

역사를 소재로 하는 문화상품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으로서 각 지역과 연관된 역사 인물에 대한 콘텐츠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류 콘텐츠의 대명사로 불리는 「대장금」의 경우만 보더라도 역사인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콘텐츠이며, 역사인물의 삶을 활용한 콘텐츠는 다양한 산업적 가치를 불러일으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 유배인 추사 김정희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역사인물의 삶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추사 김정희의 삶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교육성, 희소성, 차별성, 경제성 등의 콘텐츠적 가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추사 김정희와 관련이 있는 충남 예산, 경기도 과천, 제주도 대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 발굴 현황 및 사업 추진 사례를 통해 각 지역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제주도만의 차별성을 찾아내었다.

추사 김정희는 유배의 시기를 거치는 동안 세한도를 그리고 추사체를 완성했

을 정도로 유배는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기간이었다. 따라서 추사 김정희의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사 김정희의 유배생활을 활용한 추사유배길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공간구성, 화자개입, 이야기활용, 수화자 참여 등으로 분석하여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추사 김정희 유배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절망과 좌절로만 여겨지던 유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상실현과 예술적 완성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을 시도하였으며, 추사 김정희의 유배생활의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여 향유자들의 삶의 태도의 변화에 이르게 하는 것을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의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역사인물의 삶은 현대인들에게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 추사 김정희의 제주도 유배생활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방안에 대한 모색을 통해 지역과 관련된 역사인물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대상 및 방법	2
1) 연구 대상	2
2) 연구 방법	3
II. 추사 김정희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의 의미	4
1. 추사 김정희의 콘텐츠적 가치	4
1) 역사 인물의 삶의 가치	4
2) 추사 김정희의 가치	7
2. 추사 김정희 콘텐츠 개발 사례	10
1) 충청남도 예산의 개발 사례	10
2) 경기도 과천의 개발 사례	12
3) 제주도 대정의 개발 사례	13
4) 기타 사례	15
3. 추사 김정희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제주의 차별성	16
III. 추사 김정희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전략	19
1. 추사 김정희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방식	19
1) 공간구성을 통한 스토리텔링 방식	20
2) 화자가 개입한 스토리텔링 방식	31

3) 이야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방식	33
4) 수화자를 참여시키는 스토리텔링 방식	35
2. 추사 김정희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전략	36
1) 자아의 변화를 유도	37
2) 현재와 연관된 가치의 전달	39
3) 의미 체험	40
IV. 결론	42
참고문헌	44
Abstract	46

표 목차

<표 1> 역사 인물의 콘텐츠적 가치	7
<표 2> 추사 김정희의 콘텐츠적 가치	9
<표 3> 추사 김정희 관련 지역 장·단점 분석	17
<표 4> 추사 김정희 삶에서 제주의 차별성	18
<표 5> 추사 김정희의 주요 아호 정리	27
<표 6> 그레마스 이항대립 구조에 따른 추사의 유배생활 분석	39
<표 7> 추사 유배생활이 전하는 메시지	40
<표 8> 콘텐츠 향유자가 받아들이는 메시지	40

그림 목차

<그림 1> 추사 김정희 초상	3
<그림 2> 추사고택	10
<그림 3> 추사 김정희 묘	10
<그림 4> 추사기념관	11
<그림 5> 「판전」	12
<그림 6> 추사박물관 조감도	13
<그림 7> 제주추사관	14
<그림 8> 일로향	15
<그림 9> 추사밥상	15
<그림 10> 추사유배길 전체 코스 지도	20
<그림 11> 추사 김정희 동상(예산)	22
<그림 12> 「동파입극도」	23
<그림 13> 「완당선생해천일립상」	23
<그림 14> 「완당선생해천일립상」 입석	23
<그림 15> 추사 한시	24
<그림 16> 수월이 못 시비	24
<그림 17> 수월이 못 전경	25
<그림 18> 『완당인보』에 실린 김정희 전각	26
<그림 19> 추사 김정희의 전각을 새긴 조형물	26
<그림 20> 추사유배길 김정희의 전각을 새긴 거리	26

<그림 21> 추사 김정희의 아호를 새긴 조형물	28
<그림 22> 인성리 방사탑	29
<그림 23> 추사 김정희가 제주에서 쓴 편지	30
<그림 24> 추사 김정희가 제주에서 쓴 한글편지	30
<그림 25> 방사탑 편지함	30
<그림 26> 안내판 문안 가운데 화자가 개입한 예	31
<그림 27> 추사유배길 안내서	32
<그림 28> 추사유배길 스토리북	34
<그림 29> 추사유배음식	35
<그림 30> 이광사 글씨	38
<그림 31> 추사 김정희 글씨	38

I. 서론

1. 연구 목적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사, 이야기, 담화’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은 각 분야에서 산업적 효과를 높이는데 활용 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원형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역사를 소재로 하는 문화상품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화가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그 중 드라마 「대장금(2003)」, 「이산(2007)」 등의 성공은 역사문화자원으로써 역사 속 인물의 콘텐츠화에 대한 성공 기대감을 한층 높여 주었고, 이에 따라 각 지역과 연관된 역사 인물의 발굴 및 콘텐츠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 역시 제주와 관련 있는 인물의 콘텐츠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인물과 관련된 기념사업회 등이 조직되어 자료 발굴과 연구를 진행하면서 콘텐츠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자료 정리나 당위성에 대한 구호에 그치고 있을 뿐 실제 콘텐츠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의 효용성은 미약한 현실이다. 따라서 제주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문화 브랜드로써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인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역사 인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콘텐츠화 가능성이 높다. 삶의 궤적 속에서 자연스럽게 당대의 역사와 문화가 드러나며, 인물의 삶이 바로 하나의 스토리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 인물의 콘텐츠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산업적 가치를 불러일으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 속에서 박제화된 인물을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생명력을 부여함으로써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제주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된 역사 인물 중에 제주에서 8년 3개월 동안 유배생활을 했던 추사 김정희를 대상으로 하였다. 추사 김정희(1786~1856)는 조선 최고의 예술가로 평가받는 인물로 시(詩)·서(書)·화(畵)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룩하였다. 그는 1840년 반대파의 모함으로 제주에 유배되었으며, 유배기간 동안 독서활동, 교육활동, 예술활동을 통해 제주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그 중 최고의 글씨로 평가되는 추사체와 대표작인 「세한도(歲寒圖)」는 제주 유배 생활 중에 완성되었다.

추사 김정희를 연구 대상 인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조선시대 최고의 예술가로서 매력적인 인물인 점, 둘째, 제주에서 8년 3개월간 유배생활을 하면서 남긴 다양한 자료와 이야기가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점, 셋째,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어서 타 지역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 넷째, 유배생활의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고 예술적 완성을 이룩한 점 때문이다.

추사의 유배 생활과 관련해서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 유배지가 복원되어 있고, 관련 유물이 추사관에 전시되어 있다. 또한 추사의 문집인 『완당전집』에는 제주 유배 생활 동안 쓴 한시, 편지, 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추사 김정희를 콘텐츠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림 1> 추사 김정희 초상

*출처 : 추사문화 홈페이지

2) 연구 방법

역사 인물의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역사 인물이 삶을 통해 보여주는 자세를 통해 보편적인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추사 김정희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역사 인물의 삶이 가지는 가치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추사 김정희의 삶의 가치를 살펴본다. 그리고 추사 김정희를 대상으로 하는 각 지역의 콘텐츠 개발 사례들을 조사하고, 상호 비교를 통해 제주만의 차별성을 도출해 낸다. 이러한 차별성을 기반으로 하여 추사 김정희의 삶의 의미를 분석하여 보편적 가치를 도출해 내고, 이를 통해 추사 김정희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추사 김정희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의 의미

1. 추사 김정희의 콘텐츠적 가치

1) 역사 인물의 삶의 가치

역사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의 기록”¹⁾을 말한다. 역사에 대한 기록은 역사적으로 굵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시대를 중심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물을 중심으로 전달된다. 왜냐하면 역사의 사건은 인물에 의해 이야기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역사적 과거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 그대로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층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조미숙, 2008) 역사적 과거의 다양한 층위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 있는 그대로 존재했던 하나의 사실로서의 과거

두 번째 - 벽화나 혹은 기록, 유품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해 후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과거

세 번째 - 전해져 오는 그것을 역사학적 안목으로 해석하는 연구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과거

네 번째 - 선택하고 배제하면서 만들어내는 민족 혹은 국가 차원의 교육적 과거

다섯 번째 - 재해석하고 상상력을 가미하는 문학적 상상력의 과거

역사 인물의 삶도 위와 같은 층위를 따른다. 첫 번째는 역사 인물의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사실로서의 삶, 두 번째는 문헌이나 유물로 전해지는 삶, 세 번째는 역사가들이 유추하고 해석한 삶, 네 번째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선택된 삶, 다섯 번째는 상상력을 더해 각색한 삶 등의 층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1) 네이버 국어사전(<http://krdic.naver.com>)

그러나 사람들이 이 모든 충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역사 인물의 삶을 전달할 수 있는 기록, 유물, 유적 등이 온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드물고, 남아있는 자료에 대해 관련 연구자들의 해석 또한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역사 인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의 역사 수업을 통해 학습된 교육적인 목적으로 선택된 삶이나, 소설, 영화, 드라마 등으로 접할 수 있는 상상력을 통해 각색된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인물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 인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역사 인물의 삶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인물의 사실적인 삶 전체를 그대로 좇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역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 인물의 삶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지속성을 가진다. 현대인들은 과거의 흔적과 기억, 언어 등을 통해서 관련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역사인물의 삶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 인물의 삶이 일회적이고 특수한 개인적인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윤유석, 2010)

역사 인물의 삶이 보편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사례로 이순신을 들 수 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큰 공을 세운 장수다. 패전을 거듭하던 다른 장수들과 달리 여러 중요한 해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남해를 장악하였으며, 이로써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백의종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으며, 결국 전쟁터에서 숨을 거두었다.

어려운 처지에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의 삶은 현재까지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순신의 애국심을 기려 현재 광화문에는 이순신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동상을 통해 역사인물인 이순신의 삶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떠올리게 함으로써 애국심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 인물의 삶은 과거의 사실로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과 소통하고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개인의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과 공유할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 인물의 삶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인물의 삶과 향유자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역사

인물의 이야기와 소통 방식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서사 또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은 단순 역사적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삶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역사 인물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도 우리가 역사 인물을 스토리텔링 하는 이유는 역사·문화적으로 인정할 만한 가치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언제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윤유석, 2010)

그러므로 역사 인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물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 인물의 스토리텔링은 지금 우리가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가치와 연관되어 있다.

콘텐츠의 주요 소재가 되는 문화원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역사 인물에 대한 재해석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 활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용을 위한 가치를 판단하고 관련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역사 인물의 삶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적 가치도 포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역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당대의 여러 사건이나 문화를 포함하며, 따라서 선조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내포한다.

또한 역사적 인물은 한 명일 수밖에 없으며, 각각의 삶의 이야기가 모두 다르다. 따라서 각 인물의 삶은 고유한 이야기로서의 다른 인물과 차별화 되는 희소성이 있다.

그리고 역사적 인물은 삶의 공간에 따라 차별화된 이야기를 보여준다. 인물의 삶의 궤적에 따라 이야기의 배경이 바뀌고, 따라서 각 장소에 남겨진 이야기는 다른 곳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는다. 그래서 동일 인물의 이야기더라도 장소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의 문화를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을 추진할 경우 역사 인물의 삶은 그에

따른 수익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 인물의 콘텐츠적 가치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역사 인물의 콘텐츠적 가치

구분		내용
콘텐츠적 가치	교육성	- 당대의 역사, 문화의 전달
	희소성	- 역사적 인물로서의 다른 인물과 차별화 되는 고유한 이야기
	차별성	- 지역마다 각기 다른 이야기
	경제성	-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스토리텔링 실시 - OSMU를 통한 수익 창출 - 지역 경제 활성화, 브랜드화

위와 같은 가치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면서,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 가능한 역사 인물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역사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발굴하여 콘텐츠화 하는 것은 과거의 삶에서 발견한 새로운 삶의 가치를 현재에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활용을 통해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여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다.

2) 추사 김정희의 가치

추사 김정희²⁾는 18~19세기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이다. 시(詩)·서(書)·화(畵)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 조선시대 대표적인 예술가로 평가받는다.

정치적인 면에서 추사 김정희를 살펴보면 당시 정권의 실세였던 경주 김씨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영조의 사위였던 월성위 김한신이었으며, 그의 아버지 김노경은 예조판서를 비롯하여 이조, 공조, 형조, 병조의 판서를 두루 지낼 정도로 막강한 권세를 누렸다. 추사 김정희 역시 33세에 과거에 급제하

2) 이하 추사유배길 스토리북 『제주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 참조.

여 판의금부사, 병조참판, 성균관대사성을 역임하였으며, 동지부사로 임명되기 까지 했다. 하지만 라이벌인 안동 김씨 세력의 탄핵을 받아 제주에서 8년 3개월, 함경도 북청에서 2년여의 유배를 겪으면서 정치적으로는 실권을 하고, 말년에 과천에서 71세의 나이로 숨을 거둔다.

학자로서의 추사는 어릴 때부터 실학자인 박제가와의 교류를 통해 청나라의 선진문물에 대한 정보를 일찍 접하였다. 그 후 동지부사로 청나라를 방문하는 아버지를 따라 자제군관의 자격으로 동행한 연경행에서 중국의 대학자인 완원과 옹방강을 만나 학문에 대한 견문을 넓히게 된다. 그는 금석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많은 업적을 이룩하였다.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당시 무학대사와 관련된 비라고 알려져 있던 것을 금석문 연구를 통해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로 고증해 내기도 하였다.

예술가로서의 추사는 시·서·화에서 조선시대 최고라고 알려져 있다. 예로부터 전해지는 여러 서체를 익히고 그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추사체를 완성했다. 그리고 역관 이상적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제주 유배시절 그린 세한도는 국보 제180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는 난을 치는데도 일가견이 있었으며, 작품의 낙관으로 사용되는 전각에도 통달하였다. 당시의 서화가로서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할 정도로 예술적인 면에서도 뛰어났다.

교육자로서의 추사는 제자가 삼천명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교육활동에 힘썼는데 제주유배 기간에도 교육활동을 통해 지역의 인재들을 많이 길렀다고 한다. 추사의 제자 민규호의 기록에 따르면 추사가 제주에 온 뒤 글을 배우려고 찾아온 자가 대단히 많았고, 두어 달 동안에 인문이 크게 열려서 탐라의 황폐한 문화를 개척한 것은 추사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정도였다.(민족문화추진회, 1996)

추사의 제자에는 쇄국정책을 펼친 흥선대원군을 비롯해, 역관으로 추사에게 청나라의 책을 구해 보내주던 이상적, 개화사상가인 강위,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련 등이 있다.

추사 김정희의 삶은 유배라는 고난을 맞았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더욱 꽃을 피웠다. 모든 것을 상실한 상태에서 오히려 더욱 매진하여 성취를 이루어낸 그의 삶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여 자기 완성에 이르는 보편적 가치를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역사 인물의 삶이 그렇듯이 추사의 삶의 이야기 또한 다양한 콘텐츠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추사 김정희의 삶을 통해 우리나라 18~19세기 세도정치 시대의 상황과 개화기 직전의 세계 정서를 비롯한 당대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추사 김정희의 역사적 가치를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콘텐츠화 하여 전달할 경우 당대의 역사를 교육할 수 있으며, 최고의 권세를 누리다가 유배를 당하고, 그 곳에서 예술적인 경지에 이른 추사의 삶을 통해 현대인에게 자신의 삶이 되돌아 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런 면에서 추사 김정희의 이야기는 교육적 가치가 있다.

또한 추사 김정희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의 삶이라는 점과 추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남아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다. 그리고 추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곳은 서울, 충남 예산, 전남 강진, 제주도 대정, 경기도 과천 등이 있는데, 예산은 추사가 태어난 곳, 서울은 추사가 권세를 누리며 살았던 곳, 강진은 추사의 인연인 다산 정약용과 초의선사와 만났던 곳, 제주는 유배 생활을 했던 곳, 과천은 말년을 조용히 보냈던 곳으로 각기 차별성을 갖는다. 이처럼 교육적 가치가 있고, 희소성과 차별성을 갖춘 추사 김정희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할 경우 OSMU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추사 김정희의 콘텐츠적 가치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추사 김정희의 콘텐츠적 가치

구분		내용
콘텐츠적 가치	교육성	- 18~19세기 역사적 사건 전달 - 추사의 삶을 통한 자신의 삶 반성
	희소성	- 고립된 유배지 제주와 추사의 관계
	차별성	- 지역마다 각기 다른 추사와의 관련성
	경제성	- 예산, 제주, 과천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스토리텔링 실시 - OSMU를 통한 수익 창출 - 지역 경제 활성화, 브랜드화

2. 추사 김정희의 콘텐츠 개발 사례

추사 김정희와 관련되었다고 하는 유물들은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추사 김정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남도 예산, 경기도 과천, 제주도 대정을 중심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1) 충청남도 예산의 개발 사례

추사 김정희의 고향인 충남 예산은 추사 김정희의 종가가 있는 곳이다. 이 곳에는 추사 김정희가 어린 시절 살았던 고택이 남아있다. 이 집은 추사의 증조부이자 영조의 사위인 월성위 김한신이 지은 것으로, 영조가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일대를 사전(賜田)으로 하사하고, 충청도 군현에서 한 칸씩 건립비용을 지원받아 53칸 집을 지었다고 한다.(유홍준, 2002)

현재 이 곳에는 추사 김정희의 묘를 비롯하여 증조부 김한신과 그의 부인 화순옹주의 묘가 있으며, 주변에 추사 김정희와 관련한 화암사와 백송을 비롯하여 추사 김정희가 바위에 새겼다는 「시경(詩境)」, 「천축고선생택(天竺古先生宅)」 글씨 등 다양한 문화유적이 남아있다.



<그림 2> 추사고택



<그림 3> 추사 김정희 묘

*출처 : 추사문화 홈페이지

또한 예산에서는 추사 김정희의 업적을 조명하고 추사의 작품을 체계적으로 보존·전시하기 위해 2008년에 추사기념관을 건립하였다. 추사기념관은 ‘환영의 장, 출생과 가문, 영광의 연경 60일, 학예의 연찬, 추사의 시·서·화, 제주도 유배기/만년기, 서예사, 추사서예와 유품, 추사의 사랑방, 추사의 작품 소개, 다목적 영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체험활동으로 추사체 탁본 체험, 추사날말 퍼즐 맞추기 등을 체험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다.



<그림 4> 추사기념관

*출처 : 추사문화 홈페이지

최근에는 추사 김정희를 예산 지역 상품의 대표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해 예산 향토산업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사문화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사)내포향토자산관리센터를 조직하여 향토자원의 발굴·가치창출·산업화 연구개발사업과 향토자산 지적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자문, 향토자산과 관련된 유통, 마케팅,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추사 김정희의 글씨에서 디자인한 추사사랑체 폰트를 개발하였으며, 추사 김정희 관련 스토리를 조사하고 정리하기도 하였다. 현재 예산의 블루베리, 발효식 등의 상품에 추사 김정희 브랜드를 넣어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예산은 추사 김정희의 고향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해 지역성을 강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경기도 과천의 개발 사례

경기도 과천은 추사 김정희가 함경도 북청의 유배생활을 마치고 69세에 내려와 2년 후 죽을 때까지 남은 생을 보냈던 곳이다. 추사 김정희는 이곳에 머물면서 마지막 작품 활동을 하였으며, 죽기 3일전에 쓴 마지막 글씨인 「판전」이라는 작품을 남겼다.



<그림 5> 「판전」

과천에서는 이러한 추사 김정희와의 연관성을 살려 추사 김정희 연구의 선구자였던 후지즈카 지카시(藤塚鄰)가 가지고 있던 추사 김정희 관련 유물 2000여 점을 기증받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추사 관련 연구서들을 발간하고 있다. 또한 2007년에는 추사가 머물렀다는 과지초당을 복원하였으며, 매년 추사 작품전시회와 학술대회 등을 열고 있다. 그리고 한피과천시 국악예술단은 추사의 생애를 소재로 창작 가무악극 ‘붓 천자루 벼루 열개’를 제작, 공연(2006년 초연)하였다.

더 나아가 과천시에서는 108억원을 들여 ‘추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추사박물관은 3774㎡ 부지에 연면적 2830㎡,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로 세워질 예정이며, 상설전시실을 비롯해 수장고(유물 보관 창고), 기증전시실, 세미나실, 학예실, 체험실 등을 갖추어 예정이다.



<그림 6> 추사박물관 조감도

이러한 추진현황을 볼 때 과천시는 추사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강조하여 추사 김정희 연구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제주도 대정의 개발 사례

제주도 대정은 추사가 8년 3개월 동안 유배생활을 했던 곳이다. 현재 유배 당시 살았던 추사유배지가 복원되어 있으며, 기존에 있던 추사기념관을 확장하여 2010년 제주추사관을 개장하였다. 이 곳에는 세한도 사본을 비롯하여, 추사 김정희가 대정향교 기숙사 현판의 글씨로 써 주었다는 의문당 현판, 그리고 기증받은 추사 김정희와 친인척의 관련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그림 7> 제주추사관

추사 김정희의 글들을 모은 『완당전집』에는 편지가 많이 실려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이 제주 유배시절 쓴 편지이다. 이 편지글에는 제주 유배생활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추사 김정희가 부인에게 보낸 한글편지 역시 대부분이 제주에서 쓴 것이다. 대정에서는 매년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사 문화예술제를 개최하여 오늘날까지도 추사 김정희를 기리고 있다.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에서는 “제주유배문화의 녹색관광자원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사유배길을 비롯한 추사 김정희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는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추사 김정희의 유배지인 점을 활용하여 유배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 기타 사례

추사 김정희를 테마로 한 대표적인 스토리텔링 사례로는 소설이 주를 이룬다. 역사에는 나타나지 않는 추사 김정희의 첩을 등장시켜 소설적인 상상력을 통해 추사 김정희의 삶을 보여준 한승원의 『추사』, 추사 김정희의 대정 유배생활을 중심으로 다룬 오성찬의 『유배의 섬 곰취꽃 피다』를 비롯하여, 권오석이 쓴 역사소설 『추사 김정희』, 표운명의 『목장』과 어린이용 『추사이야기』 등이 발간되어 있다. 이 밖에 평전류 형식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쉽게 풀어쓴 유홍준의 『완당평전』, 이상국의 『추사에 미치다』, 박철상의 『세한도』 등이 있다.

추사 김정희의 유배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오설록에서는 다선(茶仙)이라 불리는 초의선사와 추사 김정희의 차에 대한 교류에 주목하여, 추사 김정희가 초의선사에게 써 주었다는 「일로향실(一爐香室)」이라는 글씨에서 따 온 일로향(一爐香)이라는 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2010년 충남 명품밥상을 개발하였는데, 그 중 추사 김정희의 한시에서 영감을 얻은 추사 밥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8> 일로향



<그림 9> 추사 밥상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추사 김정희와 관련한 콘텐츠들은 유물과 유적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자료의 연구나 박물관식의 전시 콘텐츠로의 활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관련 스토리텔링 또한 추사 김정희의 일대기를 다룬다거나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서술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아직까지 추사 김정희와 관련되어 전해오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충분히 활용한 스토리텔링은 시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추사와 관련된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박제화된 인물에 생명력을 부여할만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3. 추사 김정희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제주의 차별성

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유적, 자료의 보유, 그리고 추진하는 사업들을 살펴보았을 때 추사 김정희의 삶을 콘텐츠화 할 수 있는 지역은 충남 예산, 경기도 과천, 제주도 대정 이렇게 세 곳으로 추려낼 수 있다. 각 지역은 나름대로 추사 김정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추사 김정희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충남 예산은 추사 김정희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다. 따라서 이곳의 장점은 추사 김정희의 고향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뿌리를 강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어린 시절만 이곳에서 지내 학문적, 예술적인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지 않고, 그의 삶의 이야기 전체를 다루기에는 연관성이 적다는 점이다.

경기도 과천은 추사 김정희가 대정과 북청의 유배생활을 마치고 남은 생을 보냈던 곳이다. 이 곳은 추사 김정희의 마지막 작품인 「판전(板殿)」을 비롯하여 마지막 예술혼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추사 김정희가 머문 기간이 2년 정도에 불과하여 이 곳 역시 추사 김정희의 삶을 전체적으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 대정은 추사 김정희가 8년 3개월 동안 유배생활을 한 곳이다. 이 곳은 위대한 예술가인 추사 김정희가 가족, 친지, 친구 등의 지인들과 격리된 환경에서 상실감과 절망감을 맛본 곳이고, 고통스러운 유배생활에도 불구하고 부단한 노력으로 세한도와 추사체를 완성한 곳으로 예술적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유배시절 독서활동과 교육활동, 예술활동에 매진했던 추사 김정희의 전반

적인 삶의 굴곡을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사 김정희가 주목 받지 못해 관련 연구나 사업 추진이 미흡하고, 추사 관련 진품 유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세 곳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3> 추사 김정희 관련 지역 장·단점 분석

	충남 예산	경기도 과천	제주도 대정
관련시기	10대 이전	70대	50대
관련내용	추사가 태어난 고향	추사가 임종한 곳	추사의 유배지
장 점	추사 삶의 뿌리	추사의 마지막 예술혼	자기 완성의 시·공간
단 점	짧은 체류	짧은 체류	진품 유물 부족
시 설 물	추사기념관 추사 고택	추사박물관(예정)	제주추사관 추사유배지
기 타	천축고선생	관전	세한도, 추사체

추사 김정희의 삶에서 제주 유배생활은 학문이나 예술세계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주 유배생활을 견뎌내며 추사는 조선시대 최고의 예술가로 남게 되었고, 그의 작품은 현재까지도 최고의 작품들도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추사 김정희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제주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은 물리적으로는 추사 김정희가 좌절과 절망을 맛본 유배생활을 했던 곳이며, 예술적으로는 부단한 노력으로 완성을 이룬 시기이고, 상징적으로는 추사 김정희의 학문, 교육, 예술적 경험을 통해 그의 삶이 온전히 남아있는 곳이다. 또한 유배의 시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노력을 통해 이겨낸 삶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점이 제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별성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제주에서 역사 인물인 추사 김정희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주만의 차별성인 추사의 유배생활을 테마로 스토리텔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추사 김정희 삶에서 제주의 차별성

물리적	좌절과 절망을 맛본 유배지(추사유배지 등)
예술적	예술적 완성을 이룸(세한도, 추사체 등)
상징적	학문, 교육, 예술적 경험을 아우른 공간 절망을 극복하고 예술적 완성을 이룸

Ⅲ. 추사 김정희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전략

1. 추사 김정희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방식

역사인물의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은 인물의 이야기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보편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콘텐츠 개발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콘텐츠와 인물과의 관련성이며, 그리고 콘텐츠가 인물의 가치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윤유석은 서사행위 요소를 중심으로 역사인물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공간구성을 통한 이야기방식, 직접화법 이야기 방식, 화자가 개입한 이야기 방식, 수화자를 참여시키는 이야기 방식, 이야기를 활용한 이야기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윤유석, 2010) 이러한 방식은 인물의 삶의 배경이 되는 공간,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수화자(방문객 또는 체험자), 사건으로서의 이야기를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토리텔링 방식에 따라 관련 콘텐츠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는 제주의 유배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첫 번째 테마로 추사 김정희를 선정하였다. 그래서 추사유배지를 중심으로 추사유배길을 조성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³⁾ 따라서 추사유배길을 중심으로 추사 김정희의 콘텐츠를 스토리텔링 방식에 따라 분석하여 보고, 각 콘텐츠 별로 추사 김정희와의 연관성 및 공감할 수 있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3) 지식경제부 주관의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광역권 내 시·도간 또는 광역권간 연계 및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와 광역경제권 발전 구체화 도모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10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에 선정된 제주유배문화의 녹색관광자원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사업은 제주대학교(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의 주관하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1차년도에는 추사 김정희를 테마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1) 공간구성을 통한 스토리텔링 방식

(1) 추사유배길 조성

“제주유배문화의 녹색관광자원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사업”의 1차년도 과제의 특이점은 추사 김정희가 8년 3개월 동안 유배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대정고을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 지역의 공간을 역사인물 스토리텔링의 매체로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추사유배길 조성이다.

추사유배길은 “추사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기획되어 추사 김정희의 유배지를 중심으로 대정읍과 안덕면에 걸쳐 만들어졌다. 추사유배길은 추사 김정희를 스토리텔링하기 위하여 지역의 공간을 매체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림 10> 추사유배길 전체 코스 지도

“집념의 길”이라 명명된 1코스는 추사유배지가 있는 제주추사관에서 시작하여 → 송죽사 터 → 첫 번째 유배지 터 → 드레물 → 동계 정은 유희비 → 한남의 숙 터 → 정난주 마리아 묘 → 남문지 못 → 단산 → 세미물 → 대정향교 → 제주추사관으로 순환된다.

이 길은 “나는 70평생에 벼루 10개를 구멍 냈고, 천 자루의 붓을 닳게 했다. ((磨穿十研秃盡千毫))”는 추사의 말을 테마로 대정고을에 흩어져 있는 추사 관련 유적들을 둘러보고 그의 귀양살이 외로움과 추사체의 완성을 위한 집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인연의 길”이라 명명된 2코스는 제주추사관 → 수월이 못 → 제주옹기박물관 → 꽃자왈지대 → 서광승마장 → 오설록으로 이어진다.

이 코스는 추사와 한시(漢詩), 감귤, 매화, 말(馬), 편지 그리고 차(茶)와의 인연을 토대로 조성되었다. 수 십 편의 시를 쓰고, 무수한 편지를 식구와 지인들에게 보내고, 귤이나 꽃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표현하였으며, 특히 차를 통해 여러 지인들과 우정을 나누던 추사의 유배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색의 길”로 명명된 3코스는 대정향교 → 완당인보 → 산방산 → 추사 아호 → 안덕계곡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이 코스에서는 비교적 자유스럽게 유배지 인근을 돌아다니며 풍경을 감상하던 추사 김정희의 방황과 사색을 느낄 수 있게 구성되었다.

추사 김정희와 관련한 유배길은 기존의 산발적으로 존재했던 추사 관련 이야기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풍부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추사 김정희 관련 방문이 제주추사관과 유배지에 한정되었다면, 추사유배길을 통해 추사 김정희의 흔적이 남아있는 대정고을의 전체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완당선생해천일립상(阮堂先生海天一笠像)」 입석 제작

역사 인물과 관련 유적지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자주 활용되는 방법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형물은 주로 동상의 형태로 조성되어 왔다. 추사 김정희의 경우에도 충남 예산의 추사 기념관에 추사 김정희의 동상을 세워져 있어 그의 고향임을 알리고 있다.



<그림 11> 추사 김정희 동상(예산)

추사유배길 1코스에는 추사 김정희의 제주도 유배 당시의 모습을 그린 「완당 선생해천일상」을 활용한 추사 입석이 세워져있다. 이 조형물은 대정읍 인성리, 안성리, 보성리의 중심지인 ‘남문지 못’에 설치됨으로써 대정고을이 추사 김정희가 유배생활 했던 곳임을 공간적으로 보여주는 구실을 한다.

그림은 그 자체로 예술적 가치를 가지지만 그림과 연관된 이야기를 통해 그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며,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완당선생해천일립상」 역시 추사 김정희를 그렸다는 단순한 의미도 있지만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림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준다. 이 그림은 추사 김정희의 유배시절 제주도에 찾아와 함께 지내기도 했던 제자 소치 허련이 그린 그림으로 중국의 소동파(蘇東坡)가 혜주에 유배되었을 때 갓을 쓰고 나막신을 신은 평복 차림의 모습을 그린 「동파입극도(東坡笠屐圖)」를 모방하였다고 한다.(황정수, 2005)

추사 김정희는 소동파를 무척이나 좋아하였으며, 소동파와 유사한 삶을 살았다. 따라서 소치 허련의 그림은 추사 김정희를 소동파에 비견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하겠다.



<그림 12> 「동파입극도」 <그림 13> 「완당선생해천일립상」

따라서 이 그림은 추사 김정희와 유배, 제주를 연결해 주는 의미를 갖는 동시에, 추사와 소동파를 연결하는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완당선생해천일립상」을 새긴 조형물은 단순히 역사 인물을 상징화한 조형예술물이라기 보다는 추사 김정희의 서사적인 내용을 그림의 형식으로 스토리텔링한 조형서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4> 「완당선생해천일립상」 입석

(3) 추사 김정희 유배한시 조형물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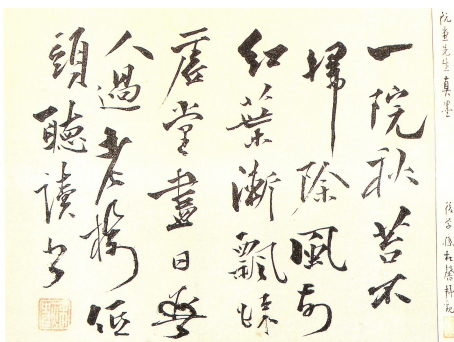
역사 인물이 시인인 경우 그가 창작한 시를 비석에 새겨 그 의미를 기리는 경우가 많다. “모란이 피기까지”로 잘 알려진 시인 김영랑의 생가에는 그가 창작한 여러 시가 곳곳에 시비로 제작되어 설치되어 있다.

다른 조형물들이 시각적인 효과를 노려 설치되는 것에 비해 시비의 경우에는 시의 내용을 통해 서사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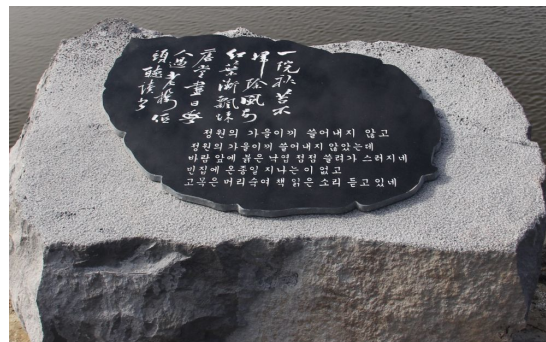
유배인들이 남긴 작품 가운데 주류를 이루는 것은 한시다. 이것은 유배인 대부분이 바로 사대부였기 때문으로 사대부들의 문학적 중심은 한시였다. 따라서 유배당한 사대부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심경, 그리고 유배지에서 겪는 일들을 한시를 통해 표출하였다.

추사유배길 2코스에 위치한 수월의 못에는 추사의 한시가 새겨진 시비 7점이 설치되어 있다.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한시를 많이 남겼다. 추사는 한시를 통해 유배인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표출했으며, 이를 통해 유배생활의 절망감과 상실감을 확인할 수 있다. 한시를 통해 화자인 추사와 독자인 방문객이 동일시 될 수 있으며, 유배인의 심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추사유배길에 설치된 추사 시비의 특징은 유배기간에 쓴 시가 주를 이루었다는 점, 유배지인 대정과 연관된 시가 있다는 점, 추사체로 재현된 시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단순한 시비 설치에서 추사 김정희의 유배라는 테마로 집중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간 구성의 효과를 높여 준다고 하겠다.



<그림 15> 추사 한시



<그림 16> 수월이 못 시비



<그림 17> 수월이 못 전경

(4) <완당인보> 입석 제작

역사 인물과 관련한 공간 구성에 있어서 인물과 관련된 특정한 조형물을 설치하기도 한다. 추사 김정희의 경우 전각⁴⁾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다양한 전각을 직접 사용하였다. 예산의 추사기념관에는 이러한 추사의 전각을 활용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추사유배길 1코스와 3코스가 갈리는 대정향교 부근에는 공간의 일정구간을 활용하여 추사 김정희의 『완당인보』에 실린 추사의 인장을 돌에 새겨놓았다. 추사는 호가 100개가 넘을 정도였으며, 그에 따라 낙관을 찍는 인장 역시 많이 사용하였다. 그는 유배시절 그 인장을 정리하여 『완당인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은 제주도 사람 박해백이 만들었다고 한다.

완당인보에는 추사의 인장 180개가 실려 있어, 추사의 작품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다양한 글씨와 모양, 무늬 등이 새겨진 전각을 통해 전각 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4) 문인묵객들의 글씨와 그림에 도장을 찍기 위해 나무나 돌, 금속 등에 인장을 새기는 것을 “전각(篆刻)” 혹은 “낙관(落款)”이라고도 한다.



齋寶
印草



<그림 18> 『완당인보』에 실린 김정희의 전각 <그림 19> 추사 김정희의 전각을 새긴 조형물



<그림 20> 추사유배길 김정희의 전각을 새긴 거리

따라서 완당인보에 실린 여러 인보들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추사와 제 주사람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또 하나의 조형서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5) 추사 김정희 아호 입석 제작

추사의 호(號)는 무려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개에 이른다 고도 한다. 그 중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 추사와 완당이다. 일반적으로 호는 한 두 개 많아야 서너개를 사용하는데, 그는 100여개가 넘는 호를 사용하였다. 추사의 호에는 그의 삶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완당은 중국의 학자 완원에서 따온 것이며, 자신의 서재를 담계 옹방강을 보배롭게 만드는 서재라 하여 보담재라 칭하고 자신의 호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완원이 대접한 승설차를 추억 하며 승설도인이라 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천축고선생의 경우에는 추사와 불교와의 인연을 나타내주며, 칠십일과의 경우 과천에 살던 추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추사에게 있어서 호는 단지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궤적을 기록해 놓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사의 호에게 추사의 삶의 이야기가 녹아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추사 김정희의 주요 아호 정리

아호	한자	의미
추사	秋史	가을 기운처럼 맑고 맑은 품격에 의리를 위해서는 집중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승설도인	勝雪道人	완원은 추사에게 회대의 명차라는 용단승설을 달여서 대접하였다. 추사는 이 승설차를 추억하며 훗날 이 호를 사용했다.
완당	阮堂	완원은 마침내 추사에게 완당이라는 호를 내렸다.
보담재	寶覃齋	자신의 서재를 담계 옹방강을 보배롭게 만드는 서재라고 하였다.
소봉래서	小蓬萊書	예산 향저의 뒷산을 소봉래라고 이름짓고 장년시절에는 그것을 호로 썼다.

아호	한자	의미
천축고선생	天竺古先生	불교와의 인연을 나타냈다.
정선	靜禪	
불노	佛奴	
비불비선	非佛非仙	
승련	勝蓮	차와의 인연을 나타냈다.
나가산인	那伽山人	가야산을 뒤집어 사용했다.
고계림인	古鷄林人	경주김씨라는 말을 돌려서 사용했다.
과칠십	果七十	70세 때 과천에 산다고 사용했다.
칠십일과	七十一果	71세 된 과천 사람이라는 뜻이다.
칠십이구초당	七十二鷗草堂	72는 많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출처 : 완당평전

이를 활용하여 추사유배길 3코스에서는 추사의 아호 100개를 일정 구간의 돌에 새겨 놓았다. 추사의 호를 통해 추사의 삶과 연관된 다양한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1> 추사 김정희의 아호를 새긴 조형물

(6) 방사탑 편지함

역사인물의 콘텐츠화에서 고려할 사항은 지역의 문화와 연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방사탑 편지함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방사탑은 제주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문화재다. 마을에 허한 기운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자주 일어날 경우 돌탑을 쌓아 액운을 막았다. 추사의 유배지인 인성리에도 문화재로 지정된 방사탑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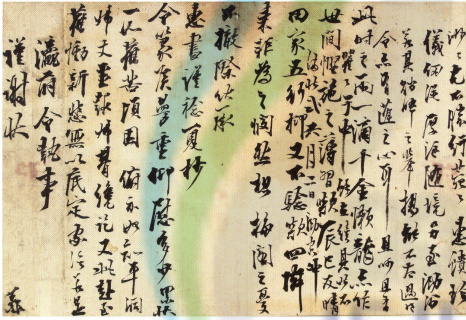
<그림 22> 인성리 방사탑

사대부에게 유배는 인생에서 액운과 같은 것이다. 특히 앞날이 창창하던 사대부에게 유배는 그 어떤 액운보다 무서운 일로 여겨질 수 있다. 추사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다. 동지부사로의 영광을 눈앞에 두고 모함에 휩싸여 제주로 유배를 당하게 된다. 가족, 친구들과 멀리 떨어진 유배의 생활은 고독과 외로움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추사는 이러한 외로움을 편지로 달랬다. 추사가 남긴 글을 모아 놓은 『완당전집』의 대부분은 편지이고, 그 중 제주에서 쓴 편지가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추사는 자신에게 액운과도 같았던 유배의 생활을 편지를 쓰며 이겨냈던 것이다.

여기에서 방사탑과 추사의 편지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액운을 막아주는 방사탑과 유배를 견디게 만든 추사의 편지는 나쁜 일을 극복해 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따라서 방사탑 편지함은 편지를 통해 액운을 막아주고 어려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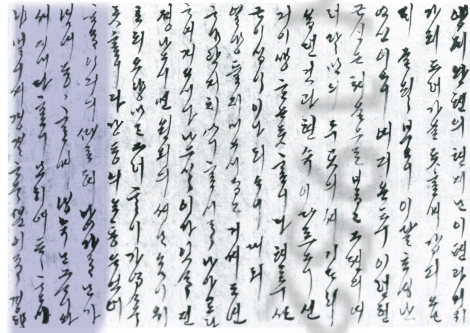
이겨낸다는 의미 부여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통해 방사탑 편지함은 추사와 제주의 문화를 연결시키면서 관련된 의미부여를 통해 스토리텔링 효과를 찾을 수 있다.



<그림 23>

추사 김정희가 제주에서 쓴 편지



<그림 24>

추사 김정희가 제주에서 쓴 한글편지



<그림 25> 방사탑 편지함

2) 화자가 개입한 스토리텔링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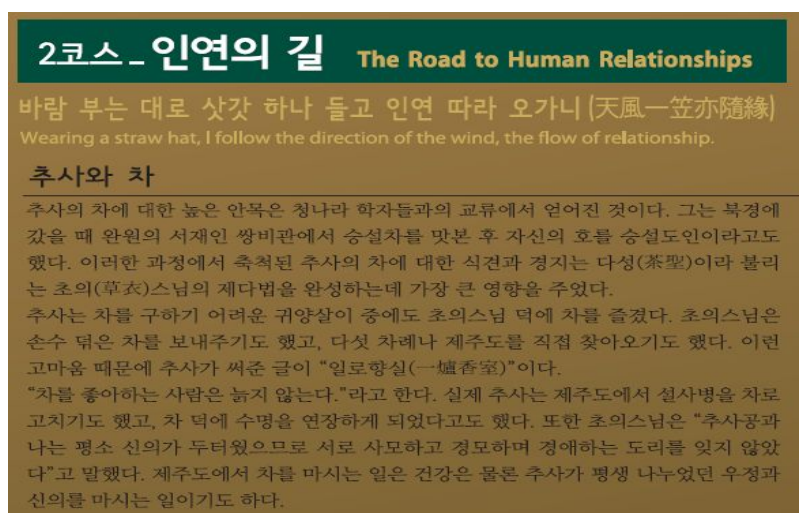
(1) 안내판 스토리

일반적으로 유적지의 안내판은 역사적 사실의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정보가 주를 이루며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들은 배제된다. 이러한 안내판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칫 딱딱한 자료 전달에 그치고 방문객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이입을 방해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과거의 사실만을 전달하여 과거와 현재의 단절감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역사인물과 관련된 장소는 역사적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이 현재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안내판에는 역사적인 장소를 통해 어떠한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뒤따라야 한다.

추사유배길의 주요 지점에 설치된 안내판은 기존의 안내판의 형식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디자인에서부터 고서의 모양을 차용하여 한 권의 책을 읽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역사 정보의 제공과 동시에 방문객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화자의 목소리로 전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추사와 차를 소개한 안내판에는 추사와 차의 관계에 대한 설명과 초의선사와의 인연에 대한 설명이 뒤따르고, 그들의 우정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방문객들은 이를 통해 단순히 추사가 차를 즐겼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 추사와 초의의 우정을 통해 자신의 우정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그림 26> 안내판 문안 가운데 화자가 개입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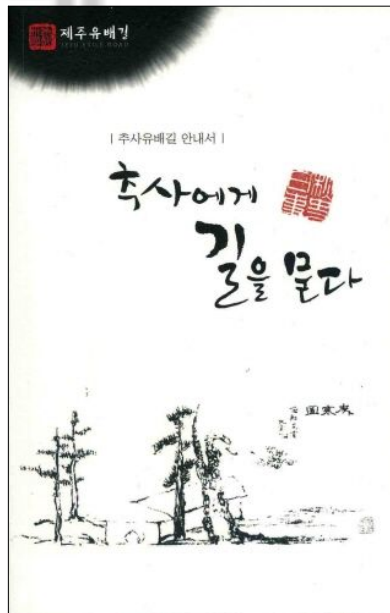
(2) 가이드북 출간

그동안의 유적지 또는 관광지의 가이드북에서는 교통편, 숙박, 식당, 지도 등의 정보가 중요했으나, 최근의 경향은 그 곳에서 어떠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제시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화자가 등장하게 된다.

추사유배길 안내서 『추사에게 길을 묻다』는 역사적 사실 전달에 충실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또한 추사유배길 안내판에서 공간의 제약으로 담지 못한 이야기들을 확장하여 전해준다.

따라서 안내서를 읽음으로써 관련 정보 습득 뿐만 아니라 책 속의 화자와의 대화를 통해 과거 대정의 모습을 이야기로 형상화 해 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시간에 따라 축적된 역사 속의 이야기들을 화자를 통해 전달하면서도 추사라는 인물, 유배라는 사건, 대정이라는 공간에 집중하면서 마치 옛날 이야기를 화자에게서 듣는 듯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림 27> 추사유배길 안내서

3) 이야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방식

(1) 스토리북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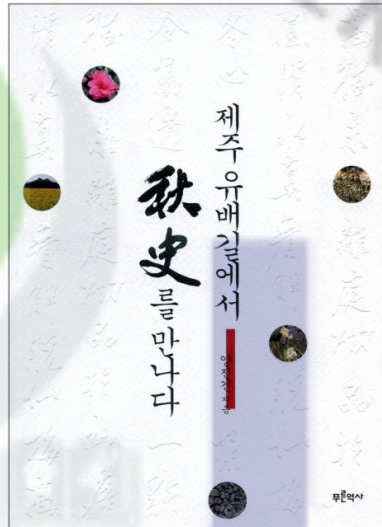
역사인물의 문헌자료는 스토리텔링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왜냐하면 문헌자료는 그 내용에 이미 이야기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유적이나 유물의 경우에도 문헌자료를 통해 관련성을 추정해내는 경우가 많다.

역사인물의 이야기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편린적으로 전해오는 인물의 이야기를 한데 모아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출판물로 이어진다. 그 지역과 관련된 인물의 이야기들은 전설처럼 짧은 이야기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과장되기도 하고 많이 생략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 서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과 연결하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추사유배길에서는 추사 김정희의 유배생활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한 스토리북인 『제주유배길에서 秋史를 만나다』를 발간하여 유배길과 연계하고 있다.

추사 김정희의 경우 현재 남아있는 자료 중에 편지가 많다. 특히 제주 유배시절 친구, 가족 등에게 보낸 편지들이 『완당전집』에 다수 실려 있어,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추사가 쓴 편지 내용을 통해 추사가 살던 유배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추사가 어떠한 음식을 먹었는지, 추사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누구와 교류를 했는지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유배를 오기까지의 이야기, 유배지에서의 어려운 생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학문과 예술 활동에 매진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그의 유배생활의 이야기들을 통해 일대기적인 인물의 단순 서술에서 벗어나 유배라는 테마를 가진 추사 김정희의 삶의 의미를 만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8> 추사유배길 스토리북

(2) 유배상품 개발

스토리북이 전해오는 이야기를 좀더 흥미롭게 재구성한 것이라면 상품의 경우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다른 콘텐츠와의 결합을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곧, 상품에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입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의 하나로 자주 사용된다. 연예인들이 드라마에서 입었던 옷이나 액세서리가 많이 팔리는 이유도 구매자가 상품 자체 보다는 상품의 의미에 더욱 주목하기 때문이다.

추사유배길에서는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추사가 제주에서 먹었던 음식을 유배 음식 상품으로 개발하였다.

서울의 양반집에서 생활하던 추사에게 제주의 음식을 먹기란 꽤나 고역이었을 것이다. 추사가 자신의 부인 예안 이씨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음식을 보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또한 추사의 글씨나 한시에 음식과 관련된 글귀가 여럿 남아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활용하여 추사가 제주에서 즐겨 먹었던 음식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음식들에 추사의 이야기와 유배지를 연결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제주에서 유배 음식을 먹으면 추사처럼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뛰어난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 전달을 통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 되는 것이다.



<그림 29> 추사유배음식

4) 수화자를 참여시키는 스토리텔링 방식

기존의 수화자의 참여방법은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을 활용한 방문 후기에 한정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각각의 형식에 따라 산재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가 확장되면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참여방법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의 방문객들은 주어진 정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나 좀 더 심화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어느 곳에서라도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고, 단체여행 보다 개인 여행을 선호하면서 기존의 짧은 시간 동안 둘러보는 방문에서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추사유배길에서는 이러한 경향에 발맞춰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현장의 안내판, 가이드북에 QR코드를 활용하여 방문객 스스로 좀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한 참여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2차, 3차적인 간접홍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기존의 홈페이지나 블로거 등은 방문객들이 개별적으로 직접 찾아와야 한다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경우 수화자의 “좋아요, 리트윗” 등의 행위를

통해 방문객과 연결된 페이스북 친구, 트위터들에게 자동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수동적이던 방문객들을 주체적으로 변화시킨다. 스스로가 직접 참여자가 되어 추사유배길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통해 심리적 우월감을 체험하게 하며, 새로운 이야기의 참여자라는 느낌이 들게 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2. 추사 김정희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전략

역사 인물의 개성 있고 특수했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삶에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인물을 이야기할 때도 그의 삶을 특성화하고 개성화하되 그 특수성에 담긴 보편적인 가치를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역사인물을 스토리텔링하는 것은 역사인물의 삶을 통한 보편적 가치를 이해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사 김정희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추사의 삶의 의미를 재조명해야 한다. 특히 추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 추사의 유배시절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삶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윤유석은 역사인물의 스토리텔링 전략으로 역사인물을 이해시켜 자아의 변화를 유도하고, 지금 연관된 가치를 이야기하며, 의미를 체험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윤유석, 2010)

이러한 역사인물의 스토리텔링 전략은 추사 김정희를 대상으로 하는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추사 김정희의 콘텐츠에 일관성 있는 의미 제시가 가능하며 다양한 확장 속에서도 중심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자아의 변화를 유도

앞서 말했듯이 역사인물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다. 역사인물의 스토리텔링은 “인물에 대한 이해가 자아의 변화로 이어질 때 스토리텔링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역사인물을 이해시켜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자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윤유석, 2010)

추사는 경주 김씨 명문가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증조부 김한신은 영조의 사위였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높은 벼슬을 지냈을 정도로 명망 있는 집안이었다. 추사 역시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당시로써는 큰 영광이라 할 수 있는 동지사 행렬에 동행하기도 한다. 청나라를 방문하면서 추사는 옹방강과 완원이라는 훌륭한 학자들을 만나 많은 지식을 쌓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당시 추사는 매우 자신만만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남긴 글과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의견을 절대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추사의 성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은 바로 유배라는 극형이었다. 탄탄대로의 인생에서 한 순간에 죄인의 신분이 되어 극악의 유배지로 쫓겨나게 된 추사는 홀로 9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변화를 보인다.

유배로 인한 심경의 변화를 알려주는 유명한 사건이 있다. 제주도로 유배를 가던 도중 해남의 대흥사에 도착했는데, 그 절에는 이광사의 글씨가 걸려 있었다. 평소에 이광사의 글씨를 못마땅히 여겼던 추사는 자신의 글씨를 써주며 바꿔 걸게 하였다. 그로부터 9년 후 유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다시 대흥사를 들리게 되었다. 추사는 이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광사의 글씨를 다시 걸라고 하였다고 한다.(유홍준, 2002)



<그림 30> 이광사 글씨



<그림 31> 추사 김정희 글씨

이렇듯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며 타협할 줄 모르던 성격의 추사가 제주 유배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인배의 자세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사의 제주유배생활은 추사 스스로에게도 자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시기였다. 세상에 대해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대인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추사의 태도 변화는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고 자만에 빠져 있는 삶을 지향하고 타인을 인정하고 세상을 좀 더 폭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게 해준다. 추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수화자의 삶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2) 현재와 연관된 가치의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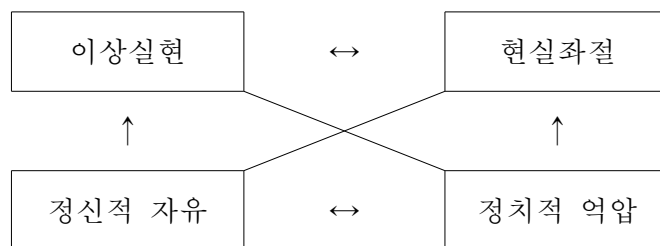
유배는 죄인을 먼 곳으로 추방하는 형벌로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원근의 등급이 있었다.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정치권력에서 멀어지는 부정적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예술적인 면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조선시대 학자들에게 유배의 시간은 그 동안의 학문을 정리하고, 독서에 매진하여 새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자 창조의 시간이었다.

다산 정약용은 강진 유배 시절 500권이 넘는 저술을 남겼고, 서포 김만중은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완성하였다.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자산어보』를 집필하기도 했다. 추사 역시 유배 기간 동안 많은 독서활동으로 학문을 정립하였으며 자신을 대표하는 추사체와 세한도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추사의 유배 생활은 정치적 억압으로 인해 현실의 좌절 상태에 처했지만 정신적 자유를 얻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사의 유배생활을 그레마스의 의미추출 방법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6> 그레마스 이항대립 구조에 따른 추사의 유배생활 분석



이를 통해 유배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오히려 기회의 시간이며,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도전의 기간으로 전환되어 긍정적인 이미지로 제시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지루한 자신의 삶에 속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쳇바퀴처럼 순환되는 삶은 현대인들에게 틀에 갇혀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품게 하며 잠시라도 벗어나고자 여행을 떠나거나 일탈을 꿈꾸곤 한다.

틀에 갇혀 있다는 현대인의 사고는 자유롭지 못한 유배의 성격과 맞닿아 있다. 그러므로 추사가 유배시절 절망과 고독을 부단한 노력과 인내로 이겨내었듯이, 답답한 현실 생활을 부단한 노력과 인내를 통해 이겨내어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상 속에서 새롭게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다.

3) 의미 체험

추사의 8년 3개월의 유배 생활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절망과 고독의 시간인 유배의 시기가 1단계이고, 인내와 부단한 노력으로 자아성찰을 하는 시기가 2단계이며, 유배를 승화시켜 예술적 완성을 통해 자아실현에 이른 시기가 3단계이다.

<표 7> 추사 유배생활이 전하는 메시지

1단계	2단계	3단계
유배	자아성찰	자아 실현
절망	부단한 노력	예술적 완성
고독	인내	승화

추사의 유배 생활이 전하는 메시지에 따라 콘텐츠 향유자가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각 단계를 거치면서 의미가 강화된다. 정체된 삶이 지속되면서 삶의 고비가 오더라도(1단계) 각성을 통해 인내와 노력을 하면(2단계) 진취적이고 새로운 삶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3단계) 것이다.

<표 8> 콘텐츠 향유자가 받아들이는 메시지

1단계	2단계	3단계
삶의 고비	인내, 노력	극복
정체된 삶	각성	진취적인 새로운 삶

따라서 추사 김정희 콘텐츠는 유배의 시절을 무한한 노력을 통해 예술적 완성으로 승화시킨 삶의 태도를 중심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향유자들은 자신의 정체된 삶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고, 진취적인 새로운 삶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다.

추사 김정희의 유배생활을 테마로 한 콘텐츠의 상징적인 의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제시할 수 있다. 즉, 지루하고 일상적인 삶을 추사 김정희 콘텐츠를 경험하면서 삶에 대해 새로운 자세를 견지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사 김정희 콘텐츠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생활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역사인물의 삶의 가치를 알아보고 추사 김정희의 삶과 관련된 역사적 가치와 교육성, 희소성, 차별성, 경제성 등의 콘텐츠적 가치를 살펴보았다. 추사 김정희와 관련이 있는 충남 예산, 경기도 과천, 제주도 대정의 콘텐츠 개발 현황 및 사업 추진 사례를 통해 추사 김정희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각 지역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제주도만의 차별성을 찾아내었다.

추사 김정희의 유배는 제한도를 그리고 추사체를 완성했을 정도로 삶의 전환점이 된 시간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추사 김정희의 유배는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배생활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추사 김정희의 유배생활을 활용하여 조성된 추사유배길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공간 구성, 화자개입, 이야기 활용, 수화자 참여 등의 방식으로 분석해 보았다.

공간 구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는 추사유배길 코스 구성을 비롯하여 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그림, 한시, 인보, 아호, 편지 등과 연계한 조형서사물 설치를 통해 관련 서사를 상징화하여 공간 구성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화자개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는 안내판과 가이드북의 내용을 화자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방문객들에게 감정이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야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는 추사 김정희와 관련하여 전해오는 이야기와 연관된 자료 등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유배시절을 재구성하여 스토리북으로 제시하였으며, 추사 김정희의 이야기를 적용한 상품을 통해 스토리텔링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수화자를 참여시키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는 소셜미디어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활용하여 방문객들이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야기 전달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추사 김정희의 유배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절망과 좌절로만 여겨지던 유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상실현과 예술적 완성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추사 김정희 유배생활의 상징적인 메시지인 자아실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여 방문객들의 삶에 대한 태도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의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역사인물의 삶은 현대인들에게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 추사 김정희의 제주도 유배생활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방안에 대한 모색을 통해 지역과 관련된 역사인물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고은미·이수라·장미영·장창영(2006),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전북: 신아출판사.
- 김만수(2006), 『문화콘텐츠 유형론』, 서울: 글누림.
- 김봉현(2005), 『濟州島流人傳』, 제주시우당도서관.
- 류수열·유지은·이수라·이요욱·장미영(2007), 『스토리텔링의 이해』, 서울: 글누림.
- 민속학회 편(1994), 『한국민속학의 이해』, 서울: 문학아카데미.
- 민족문화추진회 편(1996), 『국역 완당전집 1~3』, 서울: 솔출판사.
- 신병주(2004), 『하룻밤에 읽는 조선사』, 서울: 중앙M&B.
- 양진건(1999),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서울: 문학과지성사.
- 양진건(2011), 『제주유배길에서 秋史를 만나다』, 서울: 푸른역사.
- 예술의 전당·떡남서당(2004), 『秋史 한글편지』, 서울: 우일출판사.
- 유봉학·이세영·지두환·정재훈·정병삼·강관식·백인산·이민식·방병선
(2002), 『추사와 그의 시대』, 서울: 들베개.
- 유홍준(2002), 『완당평전 1~3』, 서울: 학교재.
- 이상국(2008), 『추사에 미치다』, 서울: 푸른역사.
- 인문콘텐츠학회(2006), 『문화콘텐츠 입문』, 서울: 북코리아.
-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2011), 『추사에게 길을 묻다』.
- 제주특별자치도(2011), 『海國에 먹물은 깊고』.
- 최혜실(2007),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삼성경제연구소.

《논문》

- 김기현,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의 발전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김예선, 「문화콘텐츠로서의 ‘살아온 이야기’ 연구」, 『겨레어문학』 제34호, 겨레어문학회, 2005.
- 김은선, 「공간 스토리텔링 기획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탁환, 「디지털시대 한문고전번역의 역할」, 『동양한문학연구』 제20호, 동양한문학회, 2004.
- 윤유석, 「역사문화자원의 소통과 스토리텔링 방안: 자서전 『백범일지』의 서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
- 윤유석,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 역사인물의 대중화: 안산 최용신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19호, 인문콘텐츠학회, 2010.
- 정경운, 「호남문화콘텐츠의 활용방안 연구」, 『호남문화연구』 제35호,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4.
- 조미숙, 「문화콘텐츠로서의 역사드라마와 신화」, 『겨레어문학』 제41호, 겨레어문학회, 2008.
- 황정수, 「추사 김정희 초상화에 대한 소견」, 『추사연구』, 제2호, 2005.

《웹사이트》

-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 제주유배길 <http://jejuyubae.com>
- 추사 김정희 <http://www.chusa.or.kr>
- 추사문화 <http://www.chusatotal.or.kr>
-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torytelling Contents
in Jeju Exile Kim Jeong-hui**

Cho, Seo Hyun

Departmen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in Geon

Because cultural products involving history have generated success there are now many attempts to develop content utilizing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and this has also invited a wide range of content development about particular historic figures as related to specific regions.

An historic figure not only acts as content for its own sake, but it can also act as an attractive resource with industrial value, contributing to the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ies.

This article seeks to discover methods of establishing a brand, which will represent a regional identity for Jeju exile Chusa Kim Jeong-hui.

Basically, a life of an historical person contains historic value yet it needs to qualify as content for storytelling development. With this in mind, I have researched the historic value of Chusa Kim Jeong-hui's life with particular attention paid to the educational value, scarcity value, differentiation, and economics as content value. I have also calculated Jeju's differentiation in Chusa Kim Jeong-hui content by

comparing it with other provinces' current content development. I have also weighed it against ongoing projects such as Yesan in Chungcheongnamdo, Gwacheon in Gyeonggido, and Daejeong in Jejudo, and analyzing each region'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spite of this period of hard life spent in exile, his time in Jeju was a critical turning point for Chusa, as this was when he created the painting of Seohando and mastered the calligraphy style of Chusache. In his lifetime the period of Jeju exile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opening Chusa Kim Jeong-hui content, and distinguished Jeju from all other regions.

In the method of storytelling, I have examined and analyzed the meaning of Chusa Exile Path according to space construction, narrator intervention, story application, and receiver participation respectively.

Based on this analysis, I have tried to represent the negative exile image as despair and frustration, by reconstructing the meaning of the Chusa Kim Jeong-hui Jeju Exile and also add a positive image of realization of ideals and the completion of art.

Furthermore, I have demonstrated the potential process for changing attitudes toward people's enjoyable lives as the strategy of storytelling content development, by delivering a meaningful portrayal and message of the Chusa Kim Jeong-hui Exile.

Lives of historical figures shed wisdom for our contemporaries by reflecting the present and preparing the future through the past. Therefore looking for the methods to develop storytelling content of the Chusa Kim Jeong-hui Jeju Exile can play an instrumental role in revealing the storytelling content that lives within regional historical figures.